

2022 THEME

더 깊이 무릎 꿇고,  
더 높이 믿음으로 날아 오르는 2022년

GO DEEPER

GO HIGHER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에배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reK) / 할렐루야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고등부(CIM) / 샬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P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BS TV 채널 20.12 · 주일/오전 11시(Live)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2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8시 30분 · 목요일/오후 1시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i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384/새585장)
- 기도 Prayer.....All together 다같이  
1부/마상오 집사 2부/박재영 집사 3부/박종민 장로 4부/최재환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내 주는 강한 성이요(편곡 Mark Hayes)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 Media 방송실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1, 2, 3부/사무엘하16:5-14 ..... All together 다같이  
4부/마가복음 8:27-9:1

말씀 Message ..... 1, 2, 3부.....Rev. Peter Joo 주성필 목사

아직 끝은 아닙니다

4부 .....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호도스 위에서 로고스를 만나다(24) "너에게 나는 뭐야?"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너는 내 아들이라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Go Deeper Go Higher

\*축도 Benediction .....Rev. Peter Joo 주성필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목회자 칼럼  
Pastor's Column

## 꼰대라서 죄송합니다

Sorry for Being an Old-Folk



주성필 목사 / Rev. Peter Joo

쉬는 날 이른 아침 아이들을 깨우며 "얘들아, 오늘은 날씨도 좋은데 모처럼 우리 하이킹하고, 다 같이 점심으로 얼큰한 순대국밥 먹으러 가자" 했더니 여지없이 "아빠 조심해! 어디 가서 그러면 꼰대 소리 들어"라고 합니다. 미처 아이들의 스케줄이나 의견을 묻지 못한 채 던진 말이지만,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듣게 된 '꼰대'라는 말이 귀에 거슬리고, 기분 또한 썩 좋지 않았습니다. 목회자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더니 저희 중에 나이가 가장 어린 목사님이 자기는 꼰대라는 말을 들어도 마음이 전혀 불편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직은 젊은 편에 속하니 꼰대라는 말을 들을 일이 없어서 그런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달리 그 목사님이 꼰대라는 말이 거슬리지 않는 이유는 나이가 이쯤 되고 이만한 위치와 경험을 가졌다면 자기도 꼰대가 맞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꼰대, 사전적으로 본래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또래 집단 내에서 '아버지나 교사 등 나이 많은 남자'를 가리키는 은어였지만, 최근에는 '자기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뜻으로 더욱 보편적으로 사용됩니다. 아마 이 시대의 어른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고지식한 방식을 고집하고 신뢰받지 못한 탓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꼰대의 어원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번데기의 영남 사투리에서 온 말일 수 있다고 풀이하기도 합니다. 번데기처럼 주름이 자글자글한 늙은이라는 의미에서 꼰데기라고 부르다가 꼰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피부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연스럽게 탄력은 사라지고 오랜 시간 반복되는 근육운동에 따라 그 자리에 골이 생기고 주름이 잡히듯이, 우리의 생각도 인생의 경험이 쌓이고 반복될수록 유연성은 사라지고 자신이 경험하고 배운 것을 옳다고 생각하는 주름이 잡혀 꼰대가 되어가는 것이겠지요.

세월과 함께 꼰대가 되어 가는 것을 피할 수 없기에 어쩔 수 없는 꼰대라서 죄송하지만, 이왕 꼰대 소리 들을 바엔 제대로 된 꼰대가 될까 합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장할 줄 알고, 내 좁은 시선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넓은 사랑으로 바라보며, '라떼'를 외치며 고집피우기보다 주님 오실 그 때를 생각하며 말씀대로 살다가 생기는 선한 주름을 내 삶에 넉넉히 쌓아가는 그런 꼰대가 되렵니다. 이제 아이들이 꼰대라 해도 기분 좋게 웃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arly in the morning on a restful day, I woke my kids up and said, "Hey kids, it's a beautiful morning. Let's go hiking and then have spicy blood sausage soup for lunch". My kid replied, "Dad, you need to be careful! If you say things like that elsewhere, they will call you an old-folk." I know I told them without checking their schedules or asking for their opinions. However, when I heard the word 'old-folk', it sounded harsh. It did not make me feel good. During our church staff meeting, I shared my story with other pastors. One of the younger pastors said that he wasn't a bit uncomfortable being called old-folk. Initially I thought maybe he felt that way because he is young and hadn't been called old-folk before. However, unlike what I had thought, he said it was because when we reach this age, position and experience, he knows that he is an old-folk. Therefore, it's not uncomfortable to hear that to him.

In dictionary, the word old-folk is defined as a jargon used by students and teens to refer to 'dads or teachers or older men'. But recently, this word is often used to refer to old-fashioned people who force their ways of thinking on others. Perhaps this is due to adults of this generation who stubbornly insist on their own ways to our younger generation. What's interesting is that, although we may not know the accurate origin of this word, some even translate it as southern(Young Nam) dialect for the word pupa. It's like an old person with creases that reminds you of pupa(ppundeggi). The word ppundeggi eventually became kkonde(old-folk). Our skin naturally loses elasticity as we get old. With repetitive muscle movements over a long time, we eventually form creases on our faces. As we build life experiences and with repetitiveness, we lose our flexibility with our thinking. We think that what we have learned and experienced is correct, thus forming more creases. We become old-folks.

My apologies for becoming an old-folk, although we cannot avoid becoming old-folks with time. If I am going to be called an old-folk, I want to become a cool old-folk. Instead of being stubborn with my own thoughts, I want to be stubborn with God's Word. Instead of judging from my own narrow view, I want to see with Jesus' all-embracing love. Instead of shouting 'when I was...' and being stubborn about it, I want to embrace His return and live by His Word, building up good creases as an old-folk. Even if my kids call me old-folk, I can smile now and feel good about it.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주성필 목사

# 아직 끝은 아닙니다

사무엘하 16:5-16

1.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인생의 가장 절망스러웠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나눠봅시다.
2. 다윗은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의 머리를 베게 해달라는 아버새의 요청에 그를 내버려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10-11절, 참고 삼하15:30)

3.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봅시다.

· 삼하 7:14-16

· 히 13:5

· 신 31:6

4. 12절을 개역개정 번역(a)대로 읽는다면 어떤 오해를 할 수 있고, 원문에 따라 바꿔 본 번역(b)에서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나눠봅시다.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a)원통함 → (b) )을 보시고 오늘 그 저주 (a)때문에 → (b) ) 여호와께서 (a)선 → (b)당신의 뜻에 좋은 것)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5. 오늘 고난에 대해 새롭게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다면 나눠 보고,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닌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결단해 봅시다.

■ 적용찬양: 너는 내 아들이라

적용하기



베델 사역 현장 스케치(2)

# 제 모습 주님 닮아가나요?



방역에 처음 조인해서 트레이닝을 받고는 너무 힘들어 다른 방역팀 봉사자들은 그동안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힘들다고 그만두시면 어찌나 하는 두려움(?)으로 토요일 파킹장에서 걸어오시는 방역 팀들을 조바심 내며 기다리던 연초가 생각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과 교회를 사랑함으로 보이지 않게 묵묵히 방역을 감당하시는 집사님들을 보며 괜한 기우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역을 잘 셋업해 놓으신 전임 장로님과 귀한 집사님들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방역기 다루는 게 서투르고 마음은 앞서기도 해서 알코올 분사하는 곳에 얼굴을 갖다 대고 작동시켜서 몇 번이고 알코올을 얼굴로 받아내던 웃지 못할 일도 지금은 모두 추억으로 남습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저희 사역팀이 50명에서 70명분의 식사를 과연 잘 준비해서 섬길 수 있을까 하는 우려와 걱정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금다식은 예삿 청년들 그리고 한어 영어 중고등부 학생들을 섬기는 사역이기 때문에 더욱 정성을 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 사역에는 든든한 대장금 권사님 네 분이 계십니다. 매주 온 정성을 다하여 저희 젊은이들의 식사를 정성껏 준비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네 분이 계심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대장금 권사님들은 저희 사역팀의 크나큰 축복입니다. 이처럼 섬기는 중에 제 마음으로는 젊은 청소년 사역 부흥의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 금다식 사역에서 100명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곧 응답되었습니다. 영어 중등부 학생들의 제자훈련이 시작되면서 더욱 많은 학생이 교회에 오고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겠다는 생각을 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김교식 장로(금다식)



험스바 예배와 주일 예배에 오시는 많은 성도님과 직접 대면하여 커피와 간단한 음식을 제공하는 카페 봉사는 단순한 섬김 뿐만 아니라, 은혜받고 나오신 성도님들을 맞이하며 또 다른 예배의 시작이라는 마음이 짐으로 만날 수 있어 즐겁습니다. 주일마다 반갑게 인사하고 미소로 응대하며 그동안 몰랐던 베델의 식구들을 알아가는 유익의 시간이기도 하며, 고생 많다고 건네는 따뜻한 말씀으로 섬김의 기쁨을 알게 되고 위로받습니다. 또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성도님의 은혜받은 환해진 얼굴을 마주하며 커피를 통해 담소와 웃음이 넘치는 공간에서 즐거워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며 오히려 우리 봉사자가 은혜와 보람을 느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성심성의껏 봉사하시는 사역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몸이 부딪히는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을 서서 일하시지만 웃음을 잃지 않고 친절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보내 주신 귀한 한분 한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진한 커피 향과 함께 예수님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카페에 오셔서 선교를 돕는 일에도 동참하시고 아름답고 풍성한 교제도 나누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박원규 장로(실내 카페)



특별 새벽 예배 후에 방역하고 출근해야 하는 팀원들이 늦게까지 기도하시는 몇몇 분을 기다리면서 저희도 늦게까지 기도하며 대기하던 시간도 이제는 그리워집니다. 코로나로 인해 방역팀이 생기고 끝날 것 같지 않던 코로나 사태도 요즘 조금은 수그러드는 것 같아서 다행이면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역팀이 없어도 되는 때가 오기를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동안 방역에 동참해주신 방역팀과 방역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참아주신 성도님들과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고석민 장로(방역)



베델의 새로운 사역 중 하나인 금다식(금요일 다음 세대를 위한 식사)은 처음에는 이름만으로도 생소하고 상당히 도전되는 사역이

저희가 2022년을 꾸준히 섬기는 동안 금다식에서 저녁으로 섬기는 인원만으로 이제는 170명이 되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면 베델의 성전에 웃음과 찬양, 그리고 기도의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저희도 계속 음식으로 이 젊은이들을 섬길 자세로 기도하며 더 많은 청년 청소년들이 교회를 채우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금요일 저녁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2세와 3세들을 어떻게 축복하고 계시는지 함께 할 수 있으시면 좋





예살 수련회 후기

# 넘쳐흐르는 주님의 사랑

2022년 10월 14일-16일까지 예살의 가장 어린인 청3의 청년들이 갈릴리 수양관에 모여 "Overflow"라는 주제로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임한 넘쳐흐르는 주님의 사랑, 그리고 이미 충분한 복음을 누리고 즐기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살의 청년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며 수양회 때 받은 은혜의 간증들을 소개합니다.

늦은 나이 유학생으로 와서 외국 회사에서 일하면서 제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쉬 때도 저는 영어 공부, 전공 공부를 합니다. 그래도 회사에서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치솟는 물가와 부동산은 더 많이 벌어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은 압박을 줍니다. therapist는 잠을 더 자고, 친구들과 가족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건강한 음식을 더 많이 챙겨 먹고 meditation을 하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말씀을 더 읽고, 기도를 더 하고, 사역을 더 하라고 합니다. 부모님과 친구들은 결혼 상대를 찾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라고 합니다. 누군가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말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번아웃이 심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양회에서 힐링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번 수양회에서 목사님이 했던 질문이 있는데, 나는 복음이 충분하다는 믿음이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되었지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따르는 멘토와 부모님, 제가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 들은 하나님이 제가 아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참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또 천국이 있다면, 거긴 또 가고 싶어서 이렇게 매주 아주 힘들게 억지로

교회는 나오려고 애씁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읽는 것도 별로 재미가 없고, 설교 시간과 기도 시간은 저한테 길기만 했죠. 그런데 그 길던 이번 수양회 설교와 기도 시간 중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겪는 건 어떤 거냐는 질문이 있었고,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나마 혼자야 등바등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어졌습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 남이 말해준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김태성 형제



수련회를 모처럼 준비하고 또 셀목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과 기도로 기다렸던 기쁨이 무엇보다 감사했습니다. 청3이 오랜만에 공동체적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서로가 믿음의 동역자임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리였고, 정말 이미 제게 주어진,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 그 기쁨과 은혜가 흘러넘침으로 제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승미진 자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정말 믿나요? 에 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도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몰랐던 분들과 알게 되고 친해질 수 있었던 시간이라 너무 좋았습니다!

민윤기 형제

교회 수양회는 처음이어서 기대 반 걱정 반이었는데, 너무나 좋은 시간, 좋은 말씀 들으면서 뜻 깊은 경험을 하게 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김세기 형제

처음으로 참석한 청3 수양회를 통해서, 저를 무진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고우림 자매

3년만에 청3 공동체가 함께 수양회에 갈 수 있었던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특히 이번 팀 셀전체가 함께 수양회 참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수정 자매

수양회를 고등학교 이후로 가본적이 없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갔는데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나경 자매

정말 오랜만에 다녀온 수련회였는데 좋은사람들과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 은혜를 많이 받았던 수련회였습니다~~!

신지수 형제



새가족 소개

# 15+15 = His love



15년이라는 짧지 않았던 필라델피아에서의 삶을 살면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두 아들을 대학에 보낸 뒤, 다시 친정 가족이 있는 남가주로 이주한 지 어느덧 두 달이 다 되어갑니다. 처음 이민 생활을 시작해 15년을 살았던 남가주로 다시 오니 고향으로 돌아온 것 같아서 마음이 설레고 기쁘지만, 다시 많은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하니 기대 반 두려움 반이었습니다. 그중

에서도 믿음 생활이 가장 부담이 되었던 것은 비단 저희 가족만의 일은 아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부에서 섬기던 기쁨의 교회 박성일 목사님께 OC 지역 교회 추천을 부탁드렸고, 바로 베델교회를 말씀하시기에 온라인으로 설교 말씀을 미리 듣고 참석하여 등록하였고, 새가족 교육을 마친 후 현재 양육반과 재정 교실을 통해 기초를 다시 다지고 셀식구들과 함께 매일 QT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우리 가족이 베델교회에 이렇게 잘 녹아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은 교회, 담임 목사님, 새가족팀, 바나바 집사님, 그리고 셀모임의 환영과 따스한 사람들을 통해 모든 것을 예비하고 역사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주님께 큰 영광과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베델이 큰 교회라서 처음엔 어색했지만, 바나바 집사님을 통해 교회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곳이라는 것을 보았고, 말씀 위주의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실천 위주의 가르침이 단지 오래 주님 믿고 섬기던 교회에서만 봉사한 우리 가족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셀목자님 부부의 순종하고 섬기는 사역들에 실천하는 믿음과 부지런함은 그만큼 채워 주시고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는 주님의 섬세한 인도 하심에 엎드려 경배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가정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더욱 자랑하고, 그분의 사랑이 저희 손과 발을 통해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분들에게도 집 나간 둘째 아들 기다리시는 아버지처럼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느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윤수아 성도

릴레이 금식 및 특새 후기

## 평생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저의 갈급한 기도 응답을 구하기 위해 시작한 새벽기도가 지금은 기도에 응답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을 잊지 않기 위한 새벽기도로 매일매일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항상 베델교회와 담임목사님을 위한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세워질 임직자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는 처음으로 금식까지 하면서 특새 기간 내내 경건한 마음으로 온 힘과 정성을 다해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임직자, 항상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임직자, 충직하고 선교에 힘쓰며, 지친 영혼들을 돌보는 섬김의 리더십이 있으신 임직자를 세워주셔서 담임목사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한 방향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베델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찰스 스펠전 목사님은 "하나님은 큰일을 시작하시기에 앞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스펠전 목사가 훌륭한 설교자로 목회자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특새는 끝났지만 내년에 베델교회를 이끌 임직자들이 바로 세워지고 베델교회가 하나님이 크게 사

용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의 동역자로 동참하겠습니다.

이종선 집사

하나님께서 우리 베델 교회를 참 사랑하시고 해마다 신실한 임직자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다가올 새로운 임직자를 세우는 큰일을 앞두고 처음으로 함께 한 이번 릴레이 금식 특별 새벽 기도회는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된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지난 9월 주일 산상 설교 시리즈 중 '극장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선포되었던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서 금식은 하나님께 대한 '항복'이며,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리고 새 일을 향한 '첫 디딤돌'이라는 성경적 핵심을 알려 주셨습니다. 특별히 베델의 새로운 임직자들을 세우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초대 교회처럼 베델 성도들이 함께 금식하며 왜 기도로 먼저 무릎 꿇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도들의 금식 명단 작성과 함께 찬양, 말씀, 그리고

기도로 함께한 이번 특새는 어느 때보다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항복'과 '전적인 신뢰'의 기도에 응답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뜻을 구하며, 이젠 새로이 세움 받으실 베델의 귀한 임직자분들을 작은 설렘으로 기대해 봅니다.

홍소연 집사



###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 ◎목회자◎

- 기획/행정: 이충경 목사
- 사랑/목회지원/선교/QTM: 정승락 목사
- 소망/예배/선교훈련/BAM: 주성필 목사
- 믿음/훈련/평생교육: 김홍식 목사
- 화평/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 은혜/교육부/전도폭발: 박성권 목사
- 총성/이웃사랑/시니어: 조태현 목사
- 새가족/경조/기도/예향: 한순교 전도사
- BGC(Family):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 일본어 예배/헵시바: 손용주 목사
- 예살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 예살채플: 공병주 전도사
- 예살채플: 김유미 전도사
- 영고등부: 여옥제(John) 목사
-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 다음세대 S.P. 디렉터: 이진아(Jinah) 전도사
-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K-1: 정가영(April) 전도사
- 영아부: 이진영 전도사
-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 지휘자: 김형직 목사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 ◎사역 간사 및 인턴◎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 유아부/한어권: 정티나 인턴 전도사

####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마현진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인현미, 김은영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음향: 강창위
- 방송실: 최중형, 김지현
- 디자인: 박선경
- 웹: 김정아
- 수양관: 오춘란

### 지역광고

# 2022 Family Fall Fest

10월의 마지막 날 축제의 현장! 2022 베델 Family Fall Fest가 10월 31일(월) 교회 코트야드에서 열립니다. 올해의 주제는 "Sparks Studio"(Created in Christ; Designed for God's Purpose)로 신나는 예배와 찬양을 비롯해 Brad Brown의 매직쇼와 재미있는 라이드, 게임 및 사진 부스와 풍선아트,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높여줄 것입니다.

특히 K-5 자녀는 매직쇼 이후 스케벤저헌트가 있습니다. 이번 축제에 등록된 모든 K-5 자녀에게 성경 말씀 구절을 이메일로 보내 드렸으며, 부서마다 암송 구절을 꼭 외워 올 수 있도록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암송과 스케벤저헌트의 미션을 모두 마친 자녀들은 K-5 Award Booth에서 Prize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케벤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축제 당일 안내 받으실 수 있으며, 영유아부와 소망부 자녀들을 위한 선물이 할렐루야 채플 어워드 부스에 준비되어 있으니 귀가하기 전에 선물을 꼭 픽업하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자녀와 함께 커스텀을 입고 오실 수 있으나 되도록 과도한 커스텀은 피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아부에서부터 초등부 자녀까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세상의 문화가 아닌 그리스도의 문화를 즐기며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축제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 대상: 영유아부에서 초등부까지(18개월-5학년), 소망부
- ▶ 장소: 베델교회 코트 야드(교회 본당 앞)
- ▶ 일시: 10월 31일(월), 오후 5시에서 8시까지
- ▶ 문의: 각 교회학교 담당 전도사

\*등록은 마감되었으며, 당일 오후 4시 30분 체크인 시간에 늦지 않게 오시길 부탁드립니다



###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11월)	11/6:	①부-박선화	②부-박성규	③부-배진용	④부-김수빈
	11/13:	①부-박영덕	②부-박원규	③부-서우석	④부-김유리
	11/20:	①부-박재문	②부-박호성	③부-송용훈	④부-니승호

헵시바 토요일 새벽 대표기도(11월)	11/5: 윤성식	11/12: 이봉재	11/19: 이명환	11/26: 이삼열
강단꽃(10,11월)	10/30: 김종근, 김창남	11/6: 김영신, 김진환	11/13: 이주은	11/20: 성홍숙

###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김혜선(소아과), 간호사-김선미      다음주 | 의사-오홍길(외과), 간호사-윤성자

### 선교후원

- [팍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욱,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비(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Karim, 박기쁨
-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승봉(유영선)
- 창의적접근지역 | 이희숙, 길예평(길진영), 희바(배안)
- \*선교기관 | 나눈선교회,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밀알선교회, 바실레리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터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P미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BS, CTS, CGN TV
-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 베델 알림판

### Bethel Announcements

◆ **썸머타임(Daylight Savings Time) 해제** 11월 6일 주일 새벽 2시를 기준 하여 2022년도 썸머타임이 해제됩니다. 주일에배 시간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새벽 2시가 1시로!!)

◆ **성인 세례/입교식 안내** 성인세례 및 입교식이 11월 13일 주일 예배 시에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오늘 세례 교육과 다음 주 문답을 수료해야 하며 CIM, BYM, 예샬, JM은 각 부서에서 교육과 문답을 진행합니다.  
세례식 및 입교식 일시/장소: 11월 13일(주일) 2부 예배 시, 본당  
교육 일시/장소: 10월 30일(주일) 오후 1시 30분, 본당 2층 컨퍼런스룸  
문답 일시/장소: 11월 6일(주일) 오후 12시 30분, 목회자실  
문의: 최규덕 장로 (949)838-4445, 조태헌 목사 (949)431-8440

◆ **감사 나눔 토크 콘서트**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성도님들의 감사의 사연과 음악이 어우러진 감사 나눔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2022년 한해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는 셀이나, 팀 또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는 상품이 있습니다.  
일시: 11월 20일(추수감사주일) 오후 4시 30분, 베델교회 코트야드  
응모 기간: 10월 30일(주일)부터 11월 6일(주일)까지  
응모 방법: 교회 앞 부스에 준비된 엽서에 기록하여 응모함에 넣어주세요.  
이메일 hongsikim@bkc.org로도 응모 가능합니다.  
문의: 김종학 집사 (949)285-9408

◆ **수요 예배** 돌아오는 수요일(4일)부터 2주간 박경철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함께 현장 예배에 참여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녁 6시 30분에는 Youtube로 실황이 방송됩니다.

◆ **셀목자 정기모임** 오는 11월 5일(토) 오전 7시 30분에 본당에서 셀목자 정기모임이 있습니다. 베델의 모든 셀목자께서는 함께 참석하셔서 귀한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 **라구나 우즈 지역 연합 셀모임** 베델교회 라구나우즈 지역의 연합과 교제를 위한 연합 셀모임을 시작합니다. 팬데믹 이후 더욱 필요한 은혜의 나눔과 서로의 교제를 위해 한 달에 한 번 열리게 됩니다.  
대상: 라구나 우즈 지역의 베델교회 모든 성도  
일시/장소: 11월 4일(금) 오후 12시 30분-오후 3시, Laguna Woods Clubhouse 7

◆ **교육부 교사 기도회** 30일 동안 한마음과 한뜻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금식 기도를 온 교육부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금식기도를 마무리하는 자리에 모든 교사와 TA께서는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10월 30일(주일) 오후 12시 45시

◆ **교회학교 캔디드라이브** 10월 31일(월)에 있을 Family Fall Fest를 위해 매주 주일 캔디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각 부서에 캔디를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캔디 드라이브에 참여한 친구들은 달란트를 받습니다. 할로윈 포장지나 땅콩이 함유되어있는 제품은 피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Family Fall Fest** 온가족의 가족 축제가 "Spark Studios"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등록은 각 부서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온 교회가 기뻐하는 복음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등록은 마감되었습니다.  
일시: 10월 31일(월) 오후 4시 30분, 체크인 시작

◆ **Samaritan's Purse Shoe Box** 캠페인 매년 가난 가운데 고통하는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 캠페인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Shoe Box는 교회학교 check in 부스에서 픽업하시면 됩니다. 선물로 준비된 Box는 주중에 교회 사무실이나 주일에 같은 장소에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모집기간/문의: 10월 30일(주일)-11월 20일(주일), 최병웅 집사 (714)586-6703

◆ **영어 중등부 성탄 콘서트** BYM 중등부에서 Phil Wickham's Christmas "Behold" Christmas Night Concert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11월 1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일시/장소: 12월 10일(토), Anaheim Honda Center  
문의: 천승현 집사 (512)947-7291

◆ **11월호 큐티인 판매** 11월호 큐티인이 실내카페에서 판매중입니다. 오늘 실내 카페에 들리셔서 구매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오실 경우는 사무실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교역자 동정** 교육부 스페셜프로그램 디렉터로 섬기시던 이진아 전도사께서 10월말로 사임하시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 **축하해 주세요**  
박종구/이정민 집사 가정에 아들 박서준 Jaden Park가 10월15일(토)에 태어났습니다.

◆ **위로해주세요**  
- 故 박기정 성도님(박영지 집사의 부친, 이동엽 집사의 장인)께서 10월 18일(화)에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 故 정재홍 성도님(정옥분 집사의 부친, 정배호 집사의 장인)께서 10월22일(토)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 故 김소세 성도님(이옥란 성도의 모친, 이광철 성도의 장모)께서 10월 22(토)일에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베델성도의 배려와 양보가 베델주차장 염려를 없앱니다!** ▶ 비전파킹랏 주소: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새가족 외 모든 베델성도님은 매 주일 비전파킹랏에 주차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차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기를 알려드립니다.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유미경 권사 ■ 사진: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 기자: 김선홍 권사, 김지연 집사, 김류리 집사, 박인주 집사, 박진아 권사, 안연진 집사, 이지애 집사, 정보미 집사, 정지혜 집사, 최경희 권사, 허성숙 집사, 황수정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mailto: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 It's not over yet 2 Samuel 16:5-16

1. Have you ever felt discouraged and thought everything was over? Share when it was.
  
2. In the Scripture, King David said, "Leave Shimei alone, let him curse." when Abishai requested to cut Shimei's head off. Why do you think he said this? (Vv 10-11, Ref/ 2 Samuel 15:30)
  
3. What have you learned from the promise that God gave David? Write down the word of God that you always hold onto.
  - 2 Samuel 7:14-16
  - Hebrew 13:5
  - Deuteronomy 31:6
  
4. We might misunderstand verse 12 in the New King James Version (a). If it is translated in a different version (b), how do you think David would have felt?
 

V12 It may be that the LORD will look on my (@affliction → ㉞ )

and that the LORD will repay me with (@good → ㉞ )

(@ for → ㉞ ) his curse today.
  
5. If you realize something new about suffering today, share what it is and determine how you would live it out until the very end.

Apply to Life

